

세계 경제 동향

●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■ '26-7-23 워싱턴포스트

- 브렌트유가 7월 23일 5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, 이달 들어서만 약 40% 상승. 이란과 연대한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겨냥해 선언한 해상 봉쇄를 이행한다며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한 데 따른 것으로, 2월 이후 사실상 막힌 호르무즈 해협(전쟁 전 세계 원유·가스의 약 20% 통과)에 이어 홍해 항로(바브엘만데브 해협, 세계 원유의 약 7%)까지 위협받는 상황
-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추가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물어 “대대적인 군사적 응징”을 가하겠다고 경고. 해운 정보업체 로이즈리스트는 호르무즈와 홍해의 ‘이중 봉쇄’가 현실화되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수입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
- ❖ 원유뿐 아니라 비료·사료 등 농자재 수입가격과 해상운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급 점검 필요

● 미국,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확정 - 한국 12.5% 적용 ■ '26-7-23 미 무역대표부(USTR)

-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금지를 도입·집행하지 않은 60개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확정. 이번 관세 조치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(미 동부 시 기준)부터 발효
- 한국은 면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총 관세 12.5% 상한 적용(기존 관세가 12.5% 미만이면 그 차액만큼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, 12.5% 이상이면 추가 부과 없음). 일본·스위스도 12.5%이며 EU·대만은 10%.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·합리적 가격으로 재배·생산할 수 없는 품목 등 5개 범주는 면제
- ❖ K-푸드 등 대미 농식품 수출품의 관세 부담 증가 여부와 품목별 면제 해당 여부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● 6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대비 8.6% 상승 ■ '26-7-22 한국은행

-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포함·전년동월대비 8.6% 상승(5월 전년동월대비 +8.5%)하며 높은 수준 지속. 식료품·에너지외 근원지수도 전월대비 포함·전년동월대비 8.6% 상승
- 6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산품(전월대비 석탄·석유제품 -5.3%, 화학제품 -1.8%)이 전월대비 0.3% 하락한 반면, 전력·가스·수도(전월대비 +1.0%)·서비스(전월대비 +0.2%)가 올라 전체 포함
- 농림수산품은 축산물(전월대비 +2.1%·전년동월대비 +10.0%)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.7%·전년동월대비 4.8% 상승
- ❖ 유가 하락으로 공산품 물가는 진정됐으나 축산물 생산자물가는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가는 만큼, 사료비 등 축산 생산비 부담과 소비자물가 전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● 2분기 실질 GDP 0.6% 성장 ■ '26-7-23 한국은행

- '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기대비 0.6%(전년동기대비 3.7%) 성장하며 한은 5월 전망(0.2%)을 상회
- 수출(전기대비 +0.8%)·지식재산생산물투자(+3.3%)·설비투자(+0.2%)와 민간소비(+0.4%)가 성장을 견인
-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(전기대비 +1.2%)·서비스업(+1.1%)이 늘었으나, 농림어업은 재배업·어업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-7.1% 감소하며 역성장. 건설업(-1.9%)도 부진
- ❖ 반도체·수출 주도의 성장 과실이 농업·농촌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과 농림어업 부진 요인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- EU, 비료·에너지 위기 대응 5억4천만 유로 농업인 지원금 배정 ■ '26-7-17 EU 집행위원회
 - EU 회원국들은 중동 위기로 인한 비료·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억4천만 유로의 농업인 재정 지원안을 승인함. 지원금이 배정된 27개 회원국은 이를 활용해 피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.
 - 국가별 배정액은 프랑스(1억712만 유로), 폴란드(6,663만 유로), 독일(6,026만 유로) 순으로 많으며, 회원국은 자국 재원으로 최대 200%까지 추가 지원 가능
 - ❖ 중동발 비료·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, 국내 수급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필요
- UN 5개 기구, 중동 분쟁 반영 2030년 기아 인구 전망 발표 ■ '26-7-21 FAO
 - UN 기구 FAO·IFAD·UNICEF·WFP·WHO는 「2026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현황」을 발표, 중동 분쟁 영향을 반영한 2030년 굶주림 인구 전망치 제시
 - 2030년 기아 인구는 분쟁 이전 전망(5억 300만 명)에서 에너지·비료 시장 회복 속도에 따라 5억 1,100~5억 2,200만 명으로 상향
 - 이번 전망은 5년간 기아 인구가 20%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추세는 유지하되, 그 속도가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·비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둔화함을 의미함. 단, 엘니뇨 등 기상이변은 미반영되어 추가 악화 가능성이 있음.
 - ❖ 중동지역 무력충돌 재개로 상황이 악화하는 만큼,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및 에너지·비료 공급망 다변화 점검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- 농식품부,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■ '26-7-20 농림축산식품부
 - (기상악화 피해 점검)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논콩 등 농작물 침수 390여 ha, 육계 등 20여만 수가 폐사하였으나,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급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
 - (품목별 가격 동향) 농산물은 생산량 증가로 도·소매가격이 낮게 형성된 반면,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점차 하락하는 추세
 - 계란(특) 소매가격: 할인판매, 생산량 회복, 수입 신선란 공급*으로 전주 대비 0.6% 하락(전년 대비 7.8% 상승)
 - * 신선란 수입 계획(만개): (7.13주간) 519 → (7.20주간) 1,878 → (7.27주간) 1,871 → (8.3주간) 2,608
 - 육계 소매가격: 부화용 종란 수입 등으로 7월 중순 6,181원/마리(전년 대비 +2.2%)에 그치며 전년 수준으로 안정
 - ❖ 강우·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, 주요 품목의 생육 및 수급 상시 점검·선제 대응 강화 필요
- 국가데이터처, 2026년 2/4분기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발표 ■ '26-7-24 국가데이터처
 - (판매가격)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4.4(2020=100)로 전년동분기 대비 5.3% 상승(전분기 대비 +1.0%), 곡물(전년동분기 대비 +15.5%)과 축산물(전년동분기 대비 +8.2%)이 상승 주도
 - (교역조건) 영농광열비(전년동분기 대비 +34.8%)·비료비(전년동분기 대비 +36.2%) 등 투입재 급등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9.3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.8% 상승(전분기 대비 +3.9%),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6.2로 전년동분기 대비 1.4% 하락(전분기 대비 -2.8%)
 - ❖ 투입재 비용 급등으로 인해 농가 채산성이 악화되는 만큼, 주요 투입재 가격 안정과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점검 필요